

도상의 전통을 고수했다 하더라도 여원인·시무외인의 통인을 맺고 있거나, 寶珠나 연봉오리를 지물로 들고 있는 관음상이 별로 없다는 점은 통일신라 관음 도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통일신라 관음상의 範本이 삼국시대 관음상이라기 보다는 隨·唐代 관음상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욱이 삼국시대의 금동관음상이 中型土가 없는 通鑄式으로 제작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 달리 통일신라 금동관음상은 속이 비어있는 중공식으로 제작된 예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이전 시대보다 발전된 양상을 보여준다.<sup>40)</sup> 통주식으로 제작된 관음상들 가운데 일부는 통일 직후인 7세기 중엽의 제작품으로 편년할 수 있다. 이들은 양식적으로 정면 직립형의 자세와 보수적인 유형의 영락장엄에서도 삼국시대 관음상을 계승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제작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 보살상을 만들지 않았고, 새로운 보살상의 모델이 제공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삼국시대 관음상의 도상이 전적으로 계승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 3. 石造觀音菩薩像의 두 가지 형식

통일신라의 많은 대중의 귀의를 받았던 관음보살상을 만들지 않았을 리는 없지만 현재 남아있는 예로 미뤄볼 때, 독립된 석조관음상이 활발하게 조성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장에서는 석조관음보살상으로 비정될

---

보며 현세구복의 신앙을 펼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세지보살에 대한 신앙 예가 많지 않다. 하물며 세지의 救苦應現 기사는 없으므로 그 활발한 신앙을 말하기 어렵고, 세지보살은 반드시 삼존불의 협시로만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병을 든 보살은 관음으로 보는 게 옳다. 중국의 경우, 광택사 칠보대의 관음상 중에는 좌협시지만 오른손으로 정병을 들고 있는 예도 있기 때문에 통일신라만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40) 郭東錫, 『製作技法을 통해본 三國時代 小金銅佛의 類型과 系譜』, 『佛教美術』 11 (1992), pp. 7-53.

만한 조각을 크게 이분하여 살펴보겠다. 하나는 삼존불의 협시보살로 조성된 예이고, 다른 하나는 11면관음상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통일신라의 석조 관음상은 삼존불의 협시로 조성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우선 주목할 만한 조각은 군위 삼존불의 협시 관음상이다(도 6). 이 군위 삼존불의 협시보살은 본존이 아미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줄 정도로 정확한 도상을 보여준다.<sup>41)</sup> 각 협시는 보관에 화불과 정병이 표현되어 있어서 이들이 『觀無量壽經』에 기반을 둔 아미타삼존불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sup>42)</sup> 이처럼 아



<도 6> 군위삼존불, 7세기 후반

41) 군위석굴의 삼존불에 대해서도 상당한 연구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논고로 裴珍達, 『군위삼존석굴』, 『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권(사회평론, 2006), pp. 34-51 참조. 이 글에서는 군위 아미타불이 촉지인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아미타이자 석가모니불로 표현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 이때 관음, 세지보살의 도상이 정확한 것은 경전적 전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2) 裴珍達, 위의 논문, pp. 40-45에서는 『稱讚淨土佛攝受經』이 소의경전이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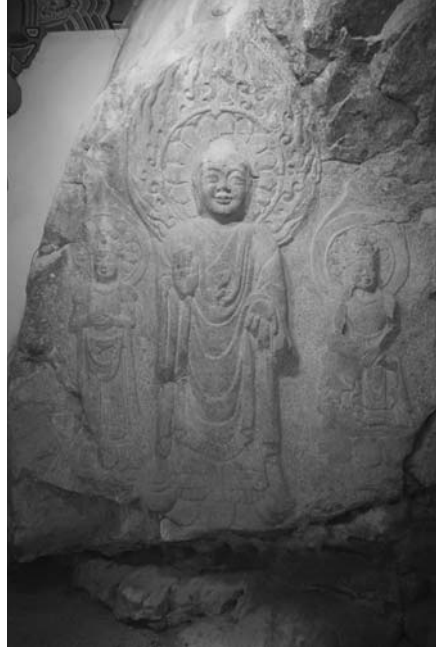
미타신앙을 사상적 배경으로 조성된 관음상은 삼존불의 협시로 조성된 예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겠다. 가령 통일 전후에 조각된 선도산 아미타삼존불, 군위 삼존불, 굴불사지 서면의 아미타삼존불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통일신라 사람들의 열렬한 아미타 숭배를 짐작하게 해주며 동시에 관음 신앙의 한 경향을 대변해준다. 대개 아미타 협시로서의 관음보살은 화불과 정병을 갖추고 있어서 소의경전의 經說을 잘 따랐다. 반면 굴불사지 서면의 좌협시보살은 내려뜨린 손으로 천의자락을 쥐고 있어서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sup>43)</sup> 굴불사지 서면의 좌협시보살이 관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좌협시보살의 머리 위에는 화불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좌협시가 관음이라고 알려졌다. 『관무량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이 부처님 연화좌의 왼쪽에 앉아서 光明을 발한다고 나온다.<sup>44)</sup> 그러나 좌우의 문제는 向左인지, 실제 좌측인지 혼동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두부가 결실된 보살이 정병을 들고 있어서 관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 중국의 예를 보면, 본존불 좌우 모두 정병을 들고 있거나 모두 천의 자락을 잡고 있는 예도 있어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혼동의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명확하게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로 조성된 관음의 도상은 새로운 도상의 유입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배리 삼존불이나 삼화령 미륵삼존불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꽃을 들고 있다거나, 서산마애불에서처럼 보주를 받쳐 들고 있는 삼국시대 석조관음상의 도상과는 차이를 보인다(도 7).<sup>45)</sup> 배리삼존불이나 서산

43) 굴불사지 서면의 삼존불을 아미타삼존으로 비정한 것은 김리나 교수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金理那, 「慶州 掘佛寺址의 四面石佛에 대하여」, 『眞檀學報』 39, 1975, pp. 43-68(『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89, pp. 239-268 재수록) 참조.

44) T365, 12:340.

45) 서산마애불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선학들의 연구가 이어졌다. 가장 이른 시기의 연구로는 黃壽永, 「瑞山百濟磨崖三尊佛像」, 『眞檀學報』 20(1959), pp. 189-192(『韓國佛像의 研究』, 삼화출판사, 1973, pp. 111-116 재수록)를 들 수 있다. 서산마애불의 도상 해석에서 『법화경』에 입각한 석가, 제화갈라, 해석이라는 독특한 견해를 피력한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文明大, 『한국조각사』(열화당, 1980), p. 128 및 同, 「百濟

마애불의 본존불이 아미타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석가라는 증거도 없다.<sup>46)</sup> 어느 쪽이든지 삼존불의 협시로 관음보살이 함께 조성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본존의 도상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협시인 관음의 도상도 當代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 점은 7세기 금동관음상이 보관화불과 정병을 든 형상으로 제작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을 전후한 시기부터 신라에서 당으로 사신을 보낸 횡수가 잦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sup>47)</sup> 당으로 구법행을 떠난 승려들과 견당사의 활동으로 인해 당 조각의 신속한 유입이 이뤄져 그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높았으리라고 생각된다.<sup>48)</sup>



<도 7> 서산마애불, 7세기

瑞山 磨崖三尊佛像의 圖像 解釋, 『美術史學研究』 221·222(1999), pp. 5-31(『관불과 고졸미』 한국의 불상조각1, 예경, 2003, pp. 309-326 재수록) 참조.

46) 서산마애불의 본존이 아미타라고 보는 견해는 좀 더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金理那, 앞의 논문(1985); 金春實, 「百濟 瑞山磨崖佛像」, 『百濟文化』 34(2005), pp. 39-50. 또 배리 삼존불에 대해서는 朱秀浣, 「新羅에 있어서 北齊·周 조각양식의 전개에 관한 一考察-선방사와 삼화령의 삼존석불을 중심으로-」, 『講座 美術史』 18(2002), pp. 185-205 참조.

47) 신라에서 당으로 보낸 遣唐使에 대해서는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pp. 43-70 참조.

48) 당으로 간 신라 구법승들의 행적과 활동에 대해서는 김상현, 「7·8세기 海東求法僧들의 중국에서의 活動과 意義-東亞細亞佛敎의 形成과 發展에 寄與한 海東高僧을



<도 8> 11면관음, 낭산 출토,  
경주박물관 소장

높이가 2.2 m에 이르는 경주 박물관 소장의 석조관음상은 아미타의 형시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狼山 衆生寺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수습되어 중생사와의 관련성이 제기된 바 있다(도 8). 이 시기의 석조불상과 비교하더라도 단독 원각상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조각으로 통일신라 관음신앙의 중요성을 암묵적으로 웅변하는 상이다. 마모가 심해서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11면관음으로 추정된다.<sup>49)</sup> 『조선고적도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왼팔 부분이 파손되었지만 근래 보수하여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복원되었

다. 이 상은 통일 초기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중생사는 『삼국유사』 <三所觀音>조에 나오는 사찰이다.<sup>50)</sup> 『삼국유사』 <삼소관음>조에는 중생사 대비관음에게 아들을 희구하고, 또 그 아들을 지켜달라고 빌었던 최승로의 아버지 崔殷畚의 얘기가 나온다. 이 관음상이 수습된

中心으로-, 『佛敎研究』 23(2005), pp. 52-74 참조.

49) 머리 위에 작은 얼굴이 몇 개인지는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 11면관음 관계 정전에는 3笑面, 3忿怒面, 3狗牙相出面, 1爆笑面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반드시 형상화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작은 얼굴이 9면 정도 표현되지만, 이 낭산 관음상의 경우는 형체가 몇 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시기 11면관음의 조성에 대해서는 姜燮靜, 「발상의 전환-神人同形에서 神人異形으로」, 『Visual』 창간호, 2002, pp. 112-134(『관음과 미륵의 도상학』, 학연문화사, 2006, pp. 115-141 재수록) 및 이숙희, 『통일신라시대 밀교계 불교조각 연구』(학연문화사, 2009), pp. 32-49 참조.

50) T2039, 49: 954c.

현재의 중생사가 <삼소관음>조의 중생사라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관음상이 현 중생사 인근에서 발견되었다면 통일신라시대 중생사의 寺域이 이 일대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삼국유사』에는 중생사 관음과 관계되는 기록이 몇 편 있어서 상당한 영험이 있는 관음으로 신앙되었음을 알려준다. 더욱이 절에 화재가 났을 때, 관음이 홀로 법당 밖에서 있었다고 했던 기록을 보면 중생사 관음상이 반드시 법당 안에 계속 모셔져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이 낭산 석조관음상의 수습 경위와 연결시켜 볼 만하다.<sup>51)</sup>



<도 9> 11면관음, 굴불사지, 8세기

십일면관음상은 통일신라 관음상의 특징적인 조형 중 하나로 생각되는데, 신라 하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에 알려진 11면관음상의 조성예가 매우 드물다. 여기서 11면관음을 다루는 이유는 이 시기의 11면관음상들이 모두 석조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전해지는 이 시기의 11면관음상은 중생사지에서 수습된 석조상 1구를 포함하여 석굴암의 11면관음상, 굴불사지의 11면6비관음부조가 있다(도 9). 11면관음의 영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신문왕대(681~691) 대덕 愷興의 병을 南巷寺 11면관음이 고쳐주었다는

51) 『조선고적도보』 제5권에 낭산 중생사지 관음상이 하반신까지 파묻힌 모습이 실려 있다. 『朝鮮古蹟圖譜』 第5卷(朝鮮總督府, 1928), p. 585.



것이 대표적이다.<sup>52)</sup> 그런데 『삼국유사』의 문맥으로 미뤄보면 이 십일면관음은 그림으로 그려진 畫像이다. 또 11면관음은 아니지만 역시 밀교계 관음으로 希明의 눈먼 아이 이야기에 나오는 분황사의 천수관음을 들 수 있는데, 이 역시 분황사 좌전 북벽에 그려진 畫像이었다. 이를 보면 통일신라의 관음신앙이 융성했음에도 현전하는 관음 조각이 많지 않은 것은 이처럼 벽화이거나 탕화로 모셔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조각으로 천수관음상을 제작하기는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불화로 조성되기가 쉬웠을 것으로 생각된다.<sup>53)</sup> 11면관음이나 천수관음 모두 당대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관음의 變化 神格으로 중국에도 隋·唐代 들어 소개된 관음이다. 당과의 빈번한 교류가 이뤄진 통일신라시대에는 중국과 별 차 없이 바로 전해졌으리라고 판단된다.<sup>54)</sup>

이들은 모두 본격적인 순수밀교의 보살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통일신라에는 순수밀교와 함께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766년에 조성된 石南寺 비로자나상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신라에서는 중국보다 먼저 智拳印의 비로자나를 조성했다. 『金剛頂經』에 기반을 둔 금강계 만다라의 주존 비로자나의 수인을 한 불상을 만든 것을 보면 중국의 밀교 승려 善無畏의 제자였던 不可思議 등에 의해 순수밀교가 전해졌음은 분명하다. 『삼국유사』에 실린 努盼夫得과 怛怛朴朴의 기사는 ‘現身成佛’을 내세운 순수밀교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55)</sup> 여인의 형상으로 나타난 관음보살의 도움을 얻어 미륵

52) T2039, 49: 1012c.

53)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천수관음 조각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사천성 대족석굴의 천수관음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남송대 조각으로 알려졌다.

54) 당대 밀교와 변화관음 신앙의 유입에 대해서는 이숙희, 「통일신라시대의 변화관음 보살상-11면관음상과 천수관음상을 중심으로」, 『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권(사회평론, 2006), pp. 52-81 참조. 이 글에서는 자장의 부모가 조성한 천부관음과 19응신 중 하나라는 광덕의 처가 천수관음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다면다비 관음상에 대해서는 姜燾靜, 앞의 논문(2002) 참조. 밀교에서 흔히 언급되는 변화관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55) T2039, 49: 995b.

과 미타로 성불했다는 두 사람은 바로 현세의 몸 그대로 성불한다는 ‘卽身成佛’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를 단지 아미타 정토로의 왕생을 도와주는 관음이라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기는 어렵다고 본다.<sup>56)</sup> 물을 매개로 삼아 성불했다는 것은 아미타정토에 있는 蓮池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化生 과정을 연상시키기는 하지만 성불과 왕생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점은 문무왕대의 일로 알려진 廣德·嚴莊 이야기와 비교하면 명확하다.<sup>57)</sup>

광덕·엄장의 기록에서는 ‘無量壽’라고 썼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 서방에 간 것으로 나온다. 또 이들은 <觀法>을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아미타신앙은 통일 이전에 유입된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반면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기사는 통일기인 7세기 중엽에 전해진 아미타 신앙과 8세기의 밀교가 결합된 것을 사상적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기사 말미에 광덕의 처는 분황사의 노비로 관음의 19응신 중 하나라 했으니, 『法華經』에 기반을 둔 관음 應身 신앙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세구복의 신앙이 아닐 뿐이다.

경주박물관에는 衆生寺址로 전해지는 狼山에서 수습된 또 다른 관음상이 있다(도 10).<sup>58)</sup> 당시 석상으로는 보기 드물게 대형의 보살상인데다 눈썹과 눈이 위로 치켜 올라간 상호에 인도 조각의 영향을 받은 성당 미술의 여운이 보인다. 그러나 허리가 길고 장신의 신체 비례를 보여주는 점에서 중당 조각과 비교될 만하다.<sup>59)</sup> 중생사 인근에서 두 구의 대형 관음보살상이 수습됐다는 것만으로도 『삼국유사』에 보이는 중생사 관음의 영험함을 추측할

56) 통일신라의 아미타 신앙을 다룬 글은 대개 이를 아미타 신앙의 측면에서만 중시하고 있다.

57) T2039, 49: 1012c.

58) 이숙희, 앞의 논문, p. 63에서는 8세기 전반으로 비정했다. 굴불사지 사면석불의 형식 보살 및 낭산 출토 보살상과의 양식적 비교를 통한 판단이다.

59) 장대한 체구에 허리가 길어지는 신체비례를 보여주는 것은 중당, 만당, 통일신라 하대 조각의 양식적 특색으로 규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성은, 『나말려초 아미타불상의 圖像的 高찰』, 『講座 美術史』 26(2006), pp. 220-222 참조.





<도 10> 관음보살, 낭산 수습, 8세기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수 있다.<sup>60)</sup> 이들 보살상은 많은 군중들이 운집하는 법회에서 충분히 주존의 역할을 했고, 그만큼 통일신라 불교 대중화에서 의미 있는 보살상으로 첫 손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석굴암의 십일면관음상과 굴불사지의 11면6비관음상도 도상과 양식은 각각 다르지만 역설적으로 특별한 도상의 특징이 없다 하더라도 11면이라는 것만으로도 관음상임이 확실하다. 이러한 11면관음상의 조성은 단지 관련 경전이 통일신라에 소개되었다고 해서 가능했던 일은 아닌 듯 하다. 玄奘의 筆受 역할을 했던 신라승 智仁이 『十一面經疏』를 썼고, 『瑜伽師地論』의 주석서 『瑜伽論記』의 저자인 遁倫(혹은 道倫) 역시 『十一面經疏』를

썼다고 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소는 목록에만 있을 뿐, 현존하지 않는다.<sup>61)</sup> 신라의 승려들이 당, 특히 장안을 중심으로 융성했던

60) 『삼국유사』의 <중생사 삼소관음>조에는 중생사, 민장사, 백률사의 관음 영험이 실려 있다.

61) 두 승려의 생몰년과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고, 중국과 일본에 전해지는 논소목록에 위의 저서 제목들이 있는 정도이다. 지인의 소는 『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에 실려 있고, 문헌의 것은 『東域傳燈目錄』과 『法進法相宗章疏』에 있다. 그나마 문헌은 중국의 『趙城金藏本』에 海東 興輪寺 승려 문론이 撰한 것이라고 써 있어서 신라의 승려

다양한 불교사상과 신앙에 매우 관심이 높았고, 그 내용이 중대신라에도 소개되었으리라는 점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 4. 맺는 말

『삼국유사』를 통해본 통일신라의 관음신앙은 현세구복적인 경향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 유형을 보면 재난에서 구해주기를 바라는 신앙,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求子の 기원 등 신앙의 형태는 다양했으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관음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그런데 문헌을 통해서만 관음신앙이 융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통일신라의 관음보살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현존하는 관음상의 예가 적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관음상에 대한 연구가 통일신라 전체 조각사에 비추어 일천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명문이나 기록으로 확인되는 관음상도 별로 많지 않아서 그만큼 통일신라 관음의 도상도 명확하지 않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영험담 속의 관음은 대개 畫像으로 조성된 것이기에 더욱 현전하는 관음상이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통일신라의 보살상을 재료에 따라 금동상과 석상으로 나누어 그 가운데 관음상으로 추정되는 예들을 살펴보았다. 석상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대중화된 불교신앙을 반영했을 것으로 보았다. 반면 훨씬 규모가 작은 금동상은 신분이 높은 특정한 개인의 현세구복적이고 내밀한 신앙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도상의 측면에서 보아도 금동상은 대부분이 독립상이므로 아미타 신앙과는 구분하여 사상적 맥락과 도상의 특징을 짚어보고자 했다. 반면 석상은 삼존불의 협시로 남아있는 예가 많아서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로서의 관음으로, 또 『관무량수경』에 입각한 조형으로 정토신앙을 擔持하는 매개자로 보았다. 석상 가운데 11면관음상의 조형은 밀교의 유입을 시사하는 것이면서 『삼국유사』

---

임을 알게 되었다. 이들 11면경 관계 저술들은 당시 시대적 상황과 현장의 필수였던 지인의 위치 등으로 미루어 현장의 번역본 『十一面神呪心經』의 疏라고 생각된다.

의 기록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통일신라시대는 불교조각에 미친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시기로서 당의 문화적 求心力이 컸다. 양식적으로는 관음상의 경우도 이와 같지만 도상에 있어서도 중국의 범본을 그대로 따랐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중국의 관음상도 그 연구가 많지 않아서 치밀한 연구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중국에서는 6세기 중엽까지 관음 도상의 주류는 통인이었고, 그 이후 서안을 중심으로 한 北周 지역의 관음은 양류관음의 도상이 주류를 이룬다. 그러나 딱히 우리나라에서도 양류관음이 성행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정병을 든 관음상이 제법 많이 남아있는 만큼 그 반대편 손으로 버들가지를 쥐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통일신라의 관음 도상으로 특징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위로 들어올린 손으로 정병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모습으로 정병을 들고 있는 관음의 도상이 유입되어 한 유형으로 계속 범본 역할을 했음을 말해준다. 통일과 함께 빠르게 당으로부터 새로운 도상과 양식이 유입되어 이에 근거하여 통일신라의 관음상이 조성되었음을 금동상과 석상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유형의 관음상은 당으로 건너갔던 승려들과 건당사에 의해 전해졌을 것이다. 당시 건당사들은 당에서 漢譯된 경전을 바로 가지고 돌아왔기 때문에 경전처럼 불·보살상도 唐帝의 回賜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당 문화의 유입이 빠르게 이뤄졌을 것이고, 삼국시대의 불교조각 역시 빠른 속도로 대체되었다고 생각된다. 삼국시대의 관음 도상과 관련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 통일신라의 관음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姜熺靜, 「발상의 전환-神人同形에서 神人異形으로」, 『Visual』 창간호, 2002, pp. 112-134(『관음과 미륵의 도상학』, 학연문화사, 2006, pp. 115-141 재수록).
- \_\_\_\_\_, 「百濟 楊柳觀音像考-호림박물관 소장 楊柳觀音像 2軀를 중심으로」, 『미술자료』 70·71, 2004, pp. 49-68(『관음과 미륵의 도상학』, 학연문화사, 2006, pp. 40-62 재수록).
- \_\_\_\_\_, 「中國古代 楊柳觀音 圖像의 成立과 展開」, 『美術史學研究』 232, 2001, pp. 156-176(『관음과 미륵의 도상학』, 학연문화사, 2006, pp. 13-39 재수록).
- \_\_\_\_\_, 『中國 觀音菩薩像 研究』, 일지사, 2004.
- 郭東錫, 「製作技法을 통해본 三國時代 小金銅佛의 類型과 系譜」, 『佛教美術』 11, 1992, pp. 7-53.
- 국립중앙박물관 편, 『영원한 생명의 울림-통일신라 조각』, 국립중앙박물관, 2008.
- 權憲永,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研究-』, 一潮閣, 1997.
- 金杜珍, 「義湘의 觀音信仰과 淨土」, 『震檀學報』 71·72, 1991, pp. 9-23.
- 金理那, 「慶州 掘佛寺址의 四面石佛에 대하여」, 『眞檀學報』 39, 1975, pp. 43-68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89, pp. 239-268 재수록).
- \_\_\_\_\_, 「三國時代의 捧持寶珠形菩薩立像 研究-百濟와 日本의 상을 중심으로-」, 『美術資料』 37, 1985, pp. 1-41(『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 一潮閣, 1989, pp. 85-143 재수록).
- \_\_\_\_\_, 「新羅 甘山寺如來式 佛像의 衣文과 日本 佛像과의 관계」, 『佛教藝術』 110, 1976, pp. 3-24(『韓國古代佛教彫史研究』, 一潮閣, 1989, pp. 206-238 재수록).
- \_\_\_\_\_, 「統一新羅 佛教彫刻에 보이는 國際的 要素」, 『新羅文化』 8, 1991, pp. 69-115(『韓國古代佛教彫刻 比較研究』, 문예출판사, 2003, pp. 317-348 재수록).
- \_\_\_\_\_, 「統一新羅時代 前期의 佛像彫刻 樣式」, 『考古美術』 154·155, 1982, pp. 61-95(『韓國古代佛教彫史研究』, 一潮閣, 1989, pp. 146-205 재수록).
- 김상현, 「7·8세기 海東求法僧들의 중국에서의 活動과 意義-東亞細亞佛教의 形成과 發展에 寄與한 海東高僧을 中心으로-」, 『佛敎學』 23, 2005, pp. 51-76.

- 金善卿, 「唐代阿彌陀三尊佛의 圖像과 長安 光宅寺 七寶臺 阿彌陀三尊像」, 서울대학교 碩士學位論文, 1995.
- 金煥泰, 「三國(麗·濟·羅)의 觀音信仰」,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編, 『韓國 觀音信仰』 한국불교사상총서7, 한국언론자료간행회, 1997, pp. 79-136.
- \_\_\_\_\_, 「新羅의 觀音思想」, 『佛敎學報』 13, 1976, pp. 63-86.
- 金春實, 「百濟 瑞山磨崖佛像」, 『百濟文化』 34, 2005, pp. 39-50.
- 文明大, 「百濟 瑞山 磨崖三尊佛像의 圖像 解釋」, 『美術史學研究』 221·222, 1999, pp. 5-31(『관불과 고졸미』 한국의 불상조각1, 예경, 2003, pp. 309-326 재수록).
- \_\_\_\_\_, 「統一新羅 佛像彫刻과 唐 佛像彫刻의 關係」, 『統一新羅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1, pp. 39-84(『원음과 고전미』 한국의 불상조각2, 예경, 2003, pp. 37-66 재수록).
- \_\_\_\_\_, 『한국조각사』, 열화당, 1980.
- 裴珍達, 「군위삼존석굴」, 『향산 안휘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권, 사회평론, 2006, pp. 34-51.
- 소현숙, 「甘山寺 彌勒菩薩立像과 阿彌陀如來立像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辛鍾遠, 「<<三國遺事>>에 실린 芬皇寺觀音菩薩 說話 譯註」, 『신라문화제 학술 논문집』 20, 1999, pp. 31-50.
- 安貴淑, 「中國淨瓶 研究」, 弘益대학교 博士學位論文, 2000.
- 이숙희, 『통일신라시대 밀교계 불교조각 연구』, 학연문화사, 2009.
- 정병모, 「신라회화변천고」, 『불교미술연구』 3·4, 1997, pp. 95-118.
- 정병삼, 「통일신라 관음신앙」, 『한국사론』 8, 1982, pp. 3-62.
- \_\_\_\_\_, 「8세기 신라의 불교사상과 문화」, 『新羅文化』 25, 2005, pp. 199-202.
- 朝鮮總督府 編, 『朝鮮古蹟圖譜』第5卷, 朝鮮總督府, 1928.
- 朱秀浣, 「新羅에 있어서 北齊·周 조각양식의 전개에 관한 一考察-선방사와 삼화령의 삼존석불을 중심으로-」, 『講座 美術史』 18, 2002, pp. 185-205.
- 최성은, 「나말려초 아미타불상의 圖像的 고찰」, 『講座 美術史』 26, 2006, pp. 220-222.
- 홍승기, 「觀音信仰과 新羅社會」, 『湖南文化研究』 8, 1976, pp. 43-64.

黃壽永, 「瑞山百濟磨崖三尊佛像」, 『眞檀學報』 20, 1959, pp. 189-192(『韓國佛像의 研究』, 삼화출판사, 1973, pp. 111-116 재수록).

牧田諦亮(마키타 타이료),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 東京: 平樂寺書店, 1970.  
松原三郎(마츠바라 사부로), 『中國佛教彫刻史論・圖版編』 3, 東京: 吉川弘文館, 1995.  
後藤大用(고토 다이요), 『觀世音菩薩の研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1976.

Yen, Ch'ian-ying, "The Sculpture from the Tower of Seven Jewels: The Style, Patronage and Iconography of the Monument,"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원고접수일 : 2010년 3월 16일

심사완료일 : 2010년 5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0년 5월 31일



ABSTRACT

---

## On the Avalokiteśvara Images in the Unified Silla Period

Kang, Heejung

Avalokiteśvara(Guanseum, 觀世音 in Korean) is one of the famous bodhisattvas in the Mahayana Buddhism(大乘佛教). He has made a great vow to listen to the prayers of all sentient beings in times of difficulty. According to *Samguk-yusa*(『三國遺事』), lots of people in the Unified Silla Period(統一新羅時代) believed and prayed to Avalokiteśvara. Some people prayed to have a son, and some people wanted not to fall into the perils. Murim(茂林) in the King Sunduk(善德) period, had prayed to Avalokiteśvara to have a son, and he got a boy named Jajang(慈藏). Jangchun(長春)'s Mother Bogae wanted for her son to come back safely, so she prayed to Avalokiteśvara from her heart. Like these stories, there are many stories related to the Avalokiteśvara faith in *Samguk-yusa*. Even if the faith in the Avalokiteśvara was flourished in those times, the images of Avalokiteśvara were not yet known to the people in nowadays. Many images of Avalokiteśvara in those days might have been painted ones, which were easily lost.

One can assumed that the people in the Unified Silla had sculpted the Avalokiteśvara image following the iconography of the precedent. Small statuettes with a Buddha image on the crown would be Avalokiteśvara images. A small gilt bronze image in Leeum is a good example. Another

iconographic feature for the judgement of Avalokiteśvara is holding a water-bottle(水瓶) in his hand. A small bronze image excavated from Guwon-ri, Hapchon, a gilt bronze image from Yongil, and another small image in the National Museum would be Avalokiteśvara image which is holding a water-bottle. On the other hand, bodhisattva images made with stone can be easily distinguished as an Avalokiteśvara. Since the stone image of Avalokiteśvara was commonly one bodhisattva of a Amithabha triad set, it can be discriminated with ease. Amithabha triad in Sundo-san (仙桃山), Amithabha triad in Gunwi(軍威), and Amithbha triad in Gulbul-saji(掘佛寺址) are consisted of Amitha, Avalokiteśvara, and Mahasthama-prapta. In these set of images, Avalokiteśvara is holding a water-bottle, or a piece of long scarf. So one can assume carefully that the iconography of the stone image of Avalokiteśvara was not always consistent.

It seems that several types of new iconography of Avalokiteśvara have been transmitted from Tang dynasty after the 7th century. Therefore the decision of Avalokiteśvara from many bodhisattvas is more difficult and cautious as it wa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